

## WCRC 총회 선교 회의

### 앨런 보에삭

변화무쌍하지만 취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배제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고민할 때, 우리는 이전 성명서들과 기초 문서들(바르멘 선언, 벨하 신앙고백, 아크라 신앙고백)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큰 가치를 봅니다. 아크라 신앙고백이 언급한 "스캔들 같은 세상"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스캔들 같으며, *벨하르가* 촉구한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서라"는 호소, 즉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억울한 자, 궁핍한 자와 함께 서라는 호소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시대에 그들처럼 진실하고, 예언자적이며, 신실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디트리히 본회퍼의 친구이자 고백교회의 목사였던 독일 신학자는 그 시대를 "치명적인 격변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당시에도 옳았으며,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하다.

우리의 생애 동안, 사명 선언문에서 밝히듯, 제국주의적 권력이 지금처럼 끊임없이, 압도적으로,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벨하*)로서, 항상,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세상의 사건들을 "고통받는 이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크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확신과 절박함으로 칼뱅의 진리를 상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갈망이 "주님께서 심어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불의와 배제, 폭력의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교의 부르심은 정의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의가 하나님 자신을 상처 입힌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으며, 바로 그 상처 입으심이야말로 기독교 선교의 심장 박동임을 확신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니콜라스 볼스터스토프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동료 인간에게 불의를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처 입히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절규는 신성한 고통의 표현이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호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애, 즉 하나님의 취약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의에 대한 호소는 하나님을 상처 입히는 것을 멈추라는 호소이며, 불의를 제거하라는 호소는 신성한 고통을 완화하라는 호소이다." 이 진리에 뿌리내림으로써 우리는 고통받는 진정한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가하면서도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규정하는 근본적 진리들이다. 제국, 즉 오늘날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경제적·문화적·정치적·군사적 권력 앞에서 '사명'이란 무엇인가? 이 제국은 신의 허락이 아닌 인간에 의해 창조된, 주인 없는 지배의 현실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벨하 신앙고백이 말하듯 "타인을 해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소유주인 양 세계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주장한다.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리정치적·지리경제적 전략에 따라 땅과 민족을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벌이는 영구적 전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평화와 안보를 약속한다. 우리는 이를 신성모독적이며 우상 숭배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규정해왔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 눈앞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가자지구의 토지 강탈, 집단 학살, 의도적 소멸 행위들이 우리의 해석적 렌즈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는 기준이 되었을 때,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는 제국의 강화된 군사적 존재감, 신식민주의와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재개된 제국주의 프로젝트,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수단, 콩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억압받고 취약하며 박탈당한 개인과 민족에게 미치는 그 결과들에 계속해서 중점을 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선교를 세상의 악한 일들을 방해하는 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들의 사역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깊이 파고든다: 수많은 이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신뢰할 수 있고, 자비로우며 예언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지금, '사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권력과 권력 없는 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권력과 무력함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예언적 신실함이 의심받는다면,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권력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하수인으로서의 선교를 특징지었던 타인을 지배하고, 군림하며, 종속시키는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폭력 속에 항상 내재된 권력의 행사이며, 항상 무력한 자들의 지속적인 권력 박탈을 위한 도구이다. 우리는 인도의 M.M. 토마스가 가르쳐 준 대로 권력을 말합니다. 즉, 권력은 국민의 "존엄성을 지니는 존재"이며 그들이 "사회와 사회 역사에 의미 있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이 오래전 상기시켜 주었듯이,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파나스타시아*(apanastasia), 즉 죄와 의심, 모든 악, 하나님의 자녀와 피조물의 고통, 그리고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한다는 신화에 대한 하나님의 반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해로운 모든 것에 맞서 하나님의 반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조물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구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위해 우리의 증언, 우리의 *마르투리아*를 인내하며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크바가 시작된 지 80년이 넘는 지금까지, 세계 다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민족에게 배워온 것으로 이를 실천합니다: 그들의 수무드—그들의 확고함, 회복력, 그리고 파괴할 수 없는 희망입니다. 수무드는 수년간의 고통과 박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역사적 뿌리내림과 정의의 대의를 향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확고한 헌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땅 위의 백성들을 위한 희망을 이루기 위한 굳건함과 인내의 의지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와 집단학살은 오늘날 우리 정치의 진정성, 신앙의 진실성, 그리고 세계 속 기독교 증언의 권위를 가늠하는 근본적 척도라는 것이 오랫동안 저의 개인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은 인종주의, 군사화, 자본주의라는 삼중의 얽힘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듣고 이해해야 할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죄악(물질주의, 군국주의, 인종주의)이라 명명했다. 교회들은 흑인 생명(반흑인 인종주의에 특화된)과 다양한 인종화된 공동체(아시아계, 라틴계, 중동계)를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운동들과 어떻게 값비싼 연대를 맺어야 할까? 이슬람 혐오가 만연한 세상 속 무슬림들을 위해서는? 21세기 생명을 위한 인종화된 운동들과 함께하는 기독교 선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운동의 지도자들은 교회와 선교에 대해 의심하거나 과거 경험으로 인해 상처받은 적이 있을 수 있다. 흑인과 갈색 인종에 대한 구체적이며 일반화된 비인간화와 '타자화'라는 맥락에서 '선교'는 어떤 모습인가?

기독교 신학은 북아메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착민 식민 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 아메리카 대륙에 해당되는 진리는 팔레스타인에도 적용된다; 팔레스타인은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예외로 취급된다. 오늘날 누구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 정착민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지만

호주나 북미에서는 많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지난 200년 가까이 팔레스타인에서 정확히 이와 같은 일을 해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시온주의를 통해 계속하고 있다. WCRC가 최악이자 이단으로 규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신학과 마찬가지로, 아말렉족 비유부터 예수의 재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팔레스타인인 학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적 억압, 재산 몰수, 인종 청소, 그리고 현재 공개적인 집단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복음을 악용한 해로운 왜곡입니다. 세계교회연합은 198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신학에 대한 우리의 예언적 입장을 신실하게 상기하며, 이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위태로운 것은 우리 증언의 연속성이라는 진정성만이 아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자체가 위태롭다. 1982년 우리가 남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억압받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귀와 마음을 열었듯이,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억압받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한다. 존 칼빈이 옳았음을 알면서: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은 바로 하나님의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이다.

진정한 선교적 동반자 관계는 진정한 우정에서 비롯된 책임감을 요구하며, 이는 '타인'과 우리 자신 안에 자리한 권력을 대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솔직하고 용기 있지만 그로 인해 취약해질 수 있는 대화를 촉구하며, 왜 우리의 하나님 꿈에 대한 비전이 종종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선교 추구가 이러한 대화의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를 향한 더 나아가고 중요한 추진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명은 사회와 역사의 현상 유지를 뒤흔듭니다. 선교사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것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경련 같은 혼란 속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적이고 생명을 주는, 파괴적인 임재 속으로 말입니다.

\*\*\*\*\*

이러한 틀과 배경 속에서 우리는 총회에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검토와 실행을 위해 제출합니다.

제안 사항:

1. 우리는 선교가 파괴임을 선포합니다. 부활이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영감을 주어 무덤 아래에서 기 다리던 여자들과 합류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무덤 앞에서 선교사들은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WCRC는 정의와 평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의 변방과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랑을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선교는 제자도입니다.

2. 팔레스타인 민족과 다양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다른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신학, 옹호 활동, 목소리 증폭을 통해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그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연대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3. WCRC는 기독교 시온주의 현상을 근본적으로 악하고 인종차별적이며 복음의 모독이자 이단으로 간주하고 인정하며 선언합니다.

4. WCRC는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수행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값비싼 연대의 방식을 정의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수사적이지 않고 행동에 기반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벨라 신앙고백의 "하나님이 서 계신 곳(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억울한 자와 함께)"에 서라는 부르심과 아크라 신앙고백의 경제적·군사적 지배라는 "추악한 세상"에 저항하라는 도전에 재헌신합니다.

5. WCRC는 회원 교회들의 투쟁 현실이라는 지역적 맥락 안에서 구축된 참여를 위한 옹호 플랫폼을 확대하고 옹호 활동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몇 주간 저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팔레스타인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국민과 목회자들에게 보낸 가슴 저미고도 강렬한 편지를 접했습니다. 이 편지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제 영혼을 고양시켰습니다. 편지의 한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우리 세대가 목격한 가장 가혹하고도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떠나느냐 머무르느냐의 선택입니다. 폭탄이 계속 떨어지고 예배 장소가 파괴되는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정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인 수십만 명이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동안, 지금 당장 이를 멈출 수 있는 세상은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이 사제들과 목사들이 떠나지 않기로 선택하는 이유다. 더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여, 다른 곳에서 삶의 잔해를 찾아내고 재건하는 대신,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이유다:

"머무름은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 땅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실용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쉽기 때문도, 운명적이기 때문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았기에 머무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의 언덕을 걸으셨으며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끝까지 사명에 충실하셨기에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통을 낭만화하기 위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성지에서 주님의 현존과 능력을 증언하기 위해 머무릅니다.

머무름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이 땅은 여전히 거룩하다고. 머무름은 팔레스타인인들—무슬림, 기독교인, 드루즈교도, 사마리아인, 바하이교도—과 유대인-이스라엘인들의 삶이 신성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무덤에서 시작됨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공동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러하셨듯 우리의 고통과 투쟁을 보시고 함께하시며, 우리 각자를 자녀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

"머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들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증오가 아닌 깊고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소유물이 아닌 선물로 사랑합니다. 무슬림과 유대인 이웃을 추상적으로가 아닌 연대와 행동으로 사랑합니다. 머무름은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아이를 키우며, 상처를 치료하고, 낯선 이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유한 자는 높이 들어 올려지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폭탄, 기아, 벽에 가려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머무름은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평화는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과 평등, 정의와 진실, 자비를 위한 치열한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집과 교회, 학교와 병원, 정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갈망하는 땅에서 또 다른 길, 곧 하느님의 길을 본보기로 삼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는 유토피아적 이상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 평화를 증언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에서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머무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육신(聖肉身)의 땅에서 살아 숨 쉬는 성육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우리의 전례는 기쁨과 고통의 순간마다 노래되어 왔으며, 아람어,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아랍어, 라틴어 등 수많은 언어와 문화를

표현해 왔습니다.

라틴어 등 수많은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성사들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오늘날 풍부하고 오래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온전히 존재하며 그에 충실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바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과 점령, 집단 학살, 지속되는 트라우마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금. 어둠이 더욱 깊어질 때조차 꺼지지 않는 빛. 비록 우리가 소수에 불과해지더라도,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굳건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억압받는 이들을 대변하며, 권력에 진실을 말하고,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공동체를 강화하며, 신앙을 깊이 다져야 합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과 파괴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사명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확신하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도 이를 이해했으며, 마치 그가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들의 귀와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정의를 위해 이 입장을 취한다면, 본회퍼는 증언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까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그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 없이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으며, 위험과 고통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은 확실하다; 우리의 기쁨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고 우리의 생명이 죽음 속에 있음은 확실하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탱해 주는 교제 안에 있음은 확실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예’와 ‘아멘’이라 말씀하셨으며, 그 ‘예’와 ‘아멘’이 우리가 서 있는 견고한 터전이다.”